

<사도행전>

<12사도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 가롯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베드로는 구약의 성취로 해석(시 69:25; 109:8)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렸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행 1:20)
-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중요한 상징이라고 파악, 맛디아 가입

<오순절 성령사건>

- 120명 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
-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
-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50일째 일어난 일
-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
① 창세기 11장에서 언어 때문에 열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통역이 필요없이 서로 말을 다 알아듣는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행 1:5,8)
②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분열에서 통합,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함
-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함.
- 구약의 오순절(맥추절)이 성령강림절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성령강림,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 오순절 성령사건이 요엘서 기록에 예언된 것으로 해석(요 2:28-32)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렸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6-17)
→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 예수 부활을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해석(시 16:8-11)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예수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하나님)를 뵈었음이며... 이는 내(예수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예수님)로 씌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행 2:25,27)
→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해석(구약 해석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 사도행전 1-12장: 중심교회-예루살렘 교회, 중심인물-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시련>

- 베드로 설교에 3천 명, 5천 명씩 회심(행 2:41, 4:4)
- 놀라운 기적: 걷지 못하는 장애인 치유(행 3:5-6)
-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심문을 받음(행 4:7)

- 아낌없이 자기 소유를 바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행 4:32-37) (자발성 없으면 공산국가처럼 실패하고 만다. 대가를 바라면 기대한 대가가 없을 때 실망하고 돌아선다.)
- 바나바의 등장, 자기 받을 팔아 바침
- 교회의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성령의 직접적 권징(행 5:1-11)(초기 시범케이스)
- 교회의 갈등: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갈등, 구제와 봉사를 위해 일곱 지도자¹⁾ 임명
- 교회의 시련: 스테반의 설교 →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죽였으니 회개하라! 그 반응은 살해,
- 신자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됨(빌립: 사마리아 교회(사마리아인도 구원 가능?), 흩어진 유대인들 중 일부가 안디옥 교회 개척)

5. 바울의 등장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

-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울(바울)
-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회심(행 9:18)
- 베드로의 환상: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줌(행 10:48): 당시 교회 중심인물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깨달음
-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행 11:20)
- 안디옥교회가 기근 구제헌금을 예루살렘교회에 보냄(구제는 돈이 있어서, 큰 교회라서 하는 것 아니다.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출옥(주의 천사가 쳐서 살림), 헤롯 아그립바1세의 죽음(주의 천사가 쳐서 죽임)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행 12:7)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라”(행 12:23)

* 사도행전 13-28장: 중심교회- 안디옥교회, 중심인물-바울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도행전 후반부 주도적 역할 감당.

<수리아 안디옥교회>

- 안디옥교회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생적으로 (행 11:19-26)
- 예루살렘교회에서 선교사 파송(같은 복음 유지하기 위해): 바나바
-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행 11:21-22)
-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 바나바의 탁월성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행 11:25-26)
-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음 (행 11:26)
- 모교회를 돕는 교회로 자라남 (행 11:29-30)

1) 보통 일곱 집사로 표현하는데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선출되었다는 면에서 집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스테반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빌립은 전도자로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집사의 성격과는 약간 다르며, 사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 핵심 리더를 아낌없이 파송하는 교회 (행 13:2-3):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핵심 리더를 떠나보내고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다양한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키프로스)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흑인)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리비아)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다소)이라” (행 13:1) →※ 지중해 지도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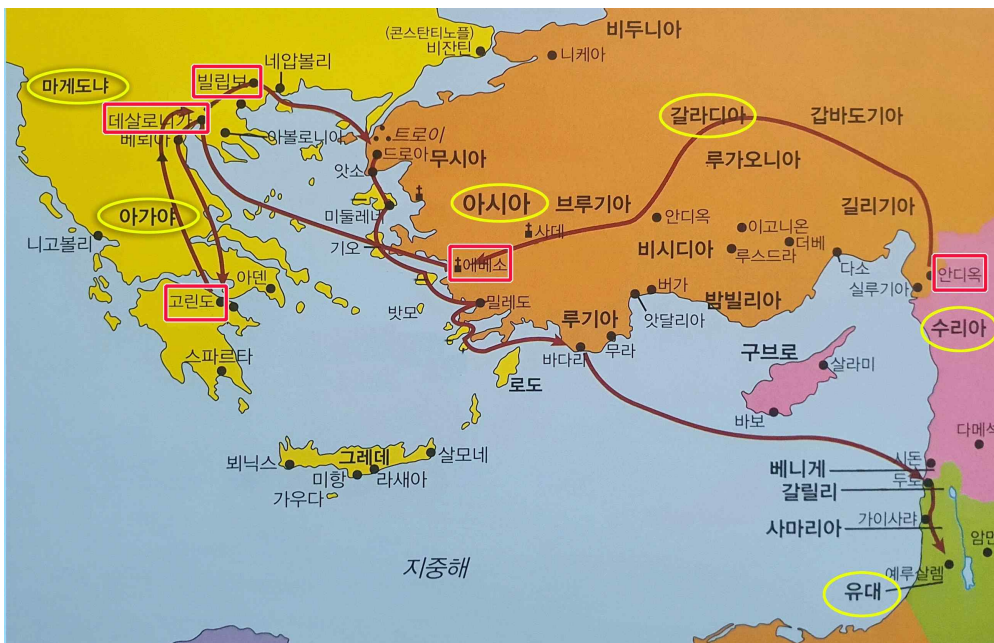
<주요 지명 외우기>

수리아 지역 (유대 윗지방, 두로와 시돈,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본토 지역 (흑해, 카스피해...)

(소)아시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사도행전의 초점 이동: 베드로에서 바울

왜? 유대인들의 반발에 대해 사도바울의 이방선교에 당위성이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함

<바울의 생애>

1차 선교여행 → 예루살렘 종교회의 → 2차 선교여행(첫 유럽선교) → 3차 선교여행 (아시아 선교) → 죄수신분으로 로마 이송, 1차 수감(가택 연금상태, 행28장 끝) → 4차 선교여행(일시 석방, 디도서 기록)→ 로마 2차 수감(디모데후서 기록), 순교

<바울의 선교여행>

※ 지명 연구

-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관문, 주요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주요도시- 고린도(에베소와 마주 보고 있다), 아덴
- 남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바울 1,2,3차에 다 거쳐가는 곳)
- 소아시아 지방: 7교회(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지금의 사이프러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
- 히에라볼리: 뜨거운물과 차가운물이 합쳐지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 타우루스 산맥: 앳달리아 인접한 험산준령의 산맥, 마가가 포기한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
- 구브로 섬: 오늘날 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
-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머물렀던 섬(27:7-8), 디도가 사역
- 가이사랴: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갇혀있었다.
- 드로아: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 바울이 환상을 통해 소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유럽)로 건너가야겠다고 결심한 곳(16:6-10)

1.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14장)

수리아 안디옥→실루기아→구브로섬(살라미스→바보→)→버가→(토러스산맥 넘어)→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더베→거꾸로→루스드라→이고니온→비시디아 안디옥→버가→앳달리아→(배타고)→수리아 안디옥



-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여행 시작
- 1,2,3차 선교여행의 베이스 캠프: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교회는 파송교회
- 함께 가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 and 마가 요한
-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구제하고 오는 길에 데리고 옴.
-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란”(행12:25).
- 아마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불렀던 것 같음.
- 주요 선교 방법: 유대인 회당 중심 사역
- 구브로에서의 사역: 마술사 바에수의 방해에도 서기오 바울이 개종(행 13:12)
- 버가에서 있는 일: 밤빌리아의 거점인 버가에서 전도 않고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바울의 풍토병?), 마가가 버가에서 도중하차(토러스 산맥 때문?),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바울 이름이 앞서 나옴),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본격 사용
-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행 13:13-14)
- 2차 선교여행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섬(행 15:39),
-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도(행 13:14-50)
- 회당 설교 내용: 시편 인용하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다!(베드로도 구약 인용)
-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행 13:33)
- 바울 선교여행 패턴: 회당 전도 → 믿는 자들 생김 → 유대인들 방해
- 이고니온에서의 사역: 회당에서 전도(행 14:1), 유대인의 방해와 위협(행 14:5)
- 루스드라의 기적: 지체 장애인 일으켜 세움(행 14:10),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소동, 둘에 맞음(행 14:19)
- 더베, 다시 되돌아가면서 세웠던 교회 돌아봄(행 14:20-26)
- 지난 번 지나쳤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함(행 14:25)
- 안디옥: 베이스캠프로 다시 입성(행 14:26)
- 1차 선교여행 선교보고(행 14:27)

2. 예루살렘 종교 회의 (사도행전 15장)

- 1차 선교여행 사이 유대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교회에 와서 예수 + 율법, 할례 주장 → 안디옥 교회 대혼란(예루살렘 교회 출신 유대인들 중 예수 + 율법 주장)
-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행 15:1)
-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방 선교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울은 모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담판 지으려고 했고 회의가 소집(15:2),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주요 이슈
- 베드로가 겪은 사건: 보자기 환상(10:28),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심(10:44), 이방인에게 율법의 굴레없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고 주장(15:11)
- 야고보도 구약의 근거를 들어 이방인들도 예수로 구원받는다 주장(15:13-20)

- 결정사항: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임. 단,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금함(15:20). 이것은 이방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행위임으로 금함.
- 이후로부터 교회 중요 결정 종교 회의에서 (하늘의 직통 계시로 결정 X ex. 니케아공의회: 성부와 성자는 동일본질이다. /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케아공의회 재확인, 니케아 신경 고백 / 칼케돈 공의회: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이후 공의회는 인정 않음)
- 이 결정으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받음
- 결정 사항을 안디옥교회에 통보: 유다와 실라를 대표단으로 보냄(행 15:22)
- 실라가 부름받아 안디옥교회에서 사역: 행 15:27, 32-34 (부지런히 목회 자원 발굴해야)

3.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5:36-18:22)

안디옥→다소→더베→루스드라→비시디아 안디옥→드로아→배 타고→네압볼리→빌립보교회 개척→데살로니가교회 개척→베뢰아교회 개척→배 타고→아덴→고린도교회 개척→겐그레아→배 타고→에베소→배 타고→로도→배 타고→가이사랴→예루살렘→수리아 안디옥



-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마친 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함께 함.
- 1차 선교여행 이후 바나바의 행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바울에게 포커스
- 바울, 실라: 육로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 컨택(이미 1차 때 접선, 바울 컨택능력)
-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딤후 3:11)
-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 시찰하며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 전달

- 바울이 생각한 2차 선교여행 목적지 - 에베소(아시아 중심도시)
- 그러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드로아까지 밀려감, 드로아의 환상: 유럽선교의 분기점.
- 16:10에 ‘우리’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했다는 의미이다.
-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행 16:10)
-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다가 3차 때 본격 사역
- 배 타고 마게도냐 첫 성읍 빌립보 입성,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군인들 위해 만든 신도시
- 자주 장사 루디아 만남: 자주색 염료는 아주 귀한 물건으로 귀족들만 입는 옷의 염료.
- 루디아의 든든한 후원 속에 빌립보교회 개척
-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 고쳐주었다가 주인들 신고로 감옥에 갇힘,
-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다가 옥문 열리고 간수 구원
-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
- 데살로니가에 약 한 달 동안 복음 전파
-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소동 일으켜 배뢰아로 피신(17:10)
- 배뢰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학구적으로 복음 받아들임(17:11)
- 유대인들 소란으로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감,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감 → 나중에 디모데, 실라가 고린도에서 합류
-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가 적고 철학자들과 논쟁에 지치고 위축(부활에 부정적인 헬라 철학)
-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
-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메이커, 텐트는 군인 or 여행 필수품),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추방됨, 바울의 활력소
- 고린도에서 1년 6개월동안 교회 개척하고 목회
-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합류
- 디모데와 실라 통해 데살로니가교회 소식 듣고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의 첫 신약 서신, 잘 성장하고 있음을 격려, 재림과 종말 문제 다룸
- 데살로니가후서: ‘곧 예수님 재림할 텐데 일을 왜 하나?’ 이런 자들 경고, 종말에 관한 문제 다시 교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살후 3:10)
-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갈라디아 지방 교회 소식 들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감
- 갈라디아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 가르침에 넘어간 것에 통탄하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요구(율법주의 회귀가 아니라 오직 은혜!)
-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아가야 총독은 갈리오(행 18:12), 갈리오 재위 시기로 추정해 볼 때 바울은 AD 51-52년 고린도에 머물렀을 것이다.
-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린도 사역 종료
-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데리고 에베소에 남겨둠 (행 18:18-19)
- 바울은 2차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둘러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3차 때 만날 것 기약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라고 함 → 복음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는 노마드 인생
- 바울의 인력활용: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픽업, 드로아에서 누가 픽업, 배뢰아로 가면서 디모

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보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픽업,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겨둠

- 베이스 캠프(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행 18:22)

3-2. 아볼로 이야기 (18:24-28)

-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 바울과 같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지켜 봄
- 아볼로: 성경에 능통,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사람, 구약을 세례 요한까지 접목
-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행 18:24)
-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함
- 아볼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 교회가 있는 고린도로 건너감 (평신도가 신학자 가르침)
- 성경에 박식하고 언변 탁월한 아볼로가 복음 변증, 고린도교회에 큰 영향
- 이후 고린도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김

4.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8:23-21:16)



-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루트를 따라 에베소에 도착, 3년 사역
- 에베소: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 도시에 냉온수시설이 되어있을 만큼 변화한 도시, 주술과 우상의 도시,
-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행 19:19) (하루 일당 X 5만일)

-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행 19:24) → 아데미 신전 (오늘날 축구장 크기)
- 바울이 에베소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 전파, 유대인 회방꾼들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
- 주술과 우상의 도시에서 큰 이적을 행함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1-12)
- 에베소에서 확산되는 복음: 마술사 회심, 아데미 우상 판매 감소 → 불만 고조

4-1. 에베소에서 바울의 구상

- 바울의 현금 모금: 갈라디아 교회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까지 현금 모아 예루살렘 교회 도우려 했다.
-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1-2)
-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 고린도에 들렀다가 현금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주고, 로마 선교 가려고 함
-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선발대로 먼저 보냄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합류)
-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행 19:21-22)

4-2. 고린도전서 기록 배경

- 고린도교회 대표단이 에베소로 찾아와 바울에게 자문 구함
- 고린도교회 문제: 교회 내 파벌(1장), 성적인 타락, 음행(5장), 혼인생활, 이혼(7장), 우상제물 먹는 문제(8장), 성만찬 참여문제(11장), 은사 사용 문제(12장) 몸의 부활 문제(15장) 등
-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대답
- 고린도전서 16장에 현금 저축해 놓으라고 부탁, 로마 가려는 계획 밝힘

4-3. 고린도후서 기록 배경

- 고린도교회 상황: 거짓 선생 영향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섬
- 바울이 이 소식 듣고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으나 냉담한 반응(2차 방문) (기록 없음)
-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 발송(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폭동 → 에베소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감(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교회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 마게도냐로 건너감)
-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 들음
-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기록, 그간 고통스러웠던 심경 고백
-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2:4)

- 고후 3-7장: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는 의혹에 대한 대답, 추천장 필요 없다.
-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고후 3:1-2)
- 고후 8-9장: 전에 이야기했던 헌금을 모아 놓으라 부탁
-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고후 8:1-2, 8)
- 고후 10-12장: 너희가 거짓 교사는 잘도 받아들이던데. 나도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 있다!
-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고후 11:22)

4-4. 바울의 사도성 논쟁

- 거짓 교사들이 온 교회를 다니며 바울의 사도성 의문 제기
-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성 무시는 굉장히 심각한 일
- 사도성 인정 받지 못하면 지금껏 세운 교회들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의문 제기할 수도
-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 됨을 강력하게 변호

5. 3차 선교여행 후반 행로

- 데메드리오의 폭동으로 에베소 사역 정리
-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마게도냐로 건너감
- 마게도냐에서 디도 만나 고린도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 들음
-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기록
- 고린도교회 3개월간 방문, 겨울 보냄
-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행 20:2-3)
- 고린도 구상: 3차 선교여행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 전달한 뒤 로마 스페인 선교 하겠다.
- 고린도에서 로마서 집필

5-1. 로마서 기록 배경 및 내용

- 바울은 로마를 빨리 방문하고 싶었으나 헌금 전달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러야 했다.
-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은 스페인(땅끝) 선교를 위함이다.
-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로마교회)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스페인)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롬 15:22-23)
- 로마를 방문할 때 스페인 선교 후원을 부탁한다.
-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롬 15:24)

- 헬라문화권에서 라틴문화권으로 선교영역 확장
- 로마서 전반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 이방인 유대인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 아래 놓인 자들이다.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 구원 받는다.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차별이 없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7-8)
- 로마서 후반부: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 설명,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5-2. 3차 선교여행 끝내고 예루살렘행

- 배 타고 예루살렘 가려 했으나 대적자들 때문에 육로로 이동
-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행 20:3)
- 현금 전달할 대표단이 드로아에 집결
-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행 20:4)
- 드로아에서 복음 전함, 유두고 사건
-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행 20:12)
-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당부, 죽기로 각오
-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
- 에베소의 장로들, 장로교의 원리 뒷받침
-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
- 두로와 가이사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만류(성령의 오판인가? 신약의 예언은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
- “두로에서 상륙하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

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행 21:3-4)

-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행 21:8-12)
- 바울이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헌금 전달 위함
-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행 24:17)
-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분위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엄수,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이 필요없다고 말한다고 반감, 바울은 이방교회의 헌금을 통해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포함
-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예수님 동생)의 조언: “바울 선생, 유대 기독교인들 시선이 있으니 나실인의 정결예식을 지키는 게 어떻겠소?”
- 바울이 정결예식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바울을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난동을 일으켜 로마군대가 출동
-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행 21:27-28)
- 아가보 예언이 실현되었으나 바울이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뜻

6. 바울의 로마행(예루살렘)



- 유대인들 난동으로 출동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체포
- 로마 군대 진영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은 바울의 구원 간증 → 유대인들 거센 반발
-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나중에 안 천부장이 두려워함
-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 소집되어 바울의 성전모독 혐의 심리 → 바울의 변증: ‘부활’ 증거 했다고 잡혔다(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대립)
- 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고 말씀
-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천부장이 로마군 출동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

6-1. 바울의 로마행(가이사랴)

- 5일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대동하고 가이사랴에 와서 고소장 제출
-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문제점 없음 발견하고 판결을 연기, 틈틈이 바울 불러 면담
- 2년이 흘러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
- 베스도 총독이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 방문, 대제사장 일파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를 요구(암살 계획), 베스도가 재판하려면 가이사랴로 오라고 거절
-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베스도 총독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 방문, 베스도와 아그립바 2세가 바울을 불러 청문회 개최
-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했으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보냄
-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

6-2. 바울의 로마행(배타고 로마까지)

- 로마로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 떠내려감
- 멜리데 섬에서 모두 구조,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은 바울, 보블리오 부친 치유
- 봄이 오자 로마행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
- 2년간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함(가택연금)

6-1. 옥중서신- 골로새서

-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동안 서신을 보냄
- 골로새: 에베소 근처에 있던 소아시아의 한 도시
- 골로새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통해 그곳 상황을 듣고 교훈을 전함
-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으라!
-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 같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자기들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 있으니 특정 의식, 금기 행해야 한다고 주장, 천사 통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환상 중시 → 바울: 특정 의식, 금식, 고행 필요 없다.)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
-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율법주의 X, 백성 된 자는 성령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서로 용납, 용서, 겸손, 사랑, 감사 등)
-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9-10)

6-2. 옥중서신- 빌레몬서

-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냄
- 빌레몬: 바울이 에베소 사역 당시 신자가 된 것으로 보임, 부유한 신자
-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주하여 로마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조력자가 됨
-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함
-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몬 1:16)

6-3. 옥중서신- 에베소서

- 에베소: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 3년간 가르친 도시, 아데미 여신, 마술의 도시
-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
- 에베소교회가 1차 수신자이지만 주변 지역에 둘러보는 회람 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
- 에베소교회는 강력한 세상 문화에 위축되어 신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렸다.
-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 하는 자라고 상기시키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독려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5-6)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

6-4. 옥중서신- 빌립보서

- 빌립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선교의 첫 개척교회, 루디아
- 아직 가택연금 상태이나 자신은 괜찮다고 빌립보교회에 안부 전함
-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 1:12)
- 빌립보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 사역을 후원했는데, 이 무렵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재정후원에 감사를 표함
-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8)
-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로마를 떠날 수 없었는데 회복했으므로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낸다고 기록
-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빌 2:27)
- 빌립보교회의 갈등에 대해 하나가 되라고 권면
-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 4:2)

7. 바울의 2차 로마 감옥 수감

-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또다시 선교여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
- 이때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 목회에 관한 교훈 담고 있어서 목회서신

-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대거 잡아들일 때 바울도 잡혀서 감옥에 갇을 것으로 추정
- 1차 구금 때는 가택 연금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죄수 생활, 2차 구금 때는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 보냄
-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작성

7-1.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항상 동행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
-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을 알고 디모데를 거기에 남김
-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딤후 1:3-4)
- 디모데야, 기도 많이 해라.
-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 디모데야, 직분자(감독, 집사)의 자격에 따라 잘 세워라.
-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딤후 3:2)
-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바로 잡아라.
-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 4:3)

7-2. 목회서신: 디도서

- 디도: 디모데처럼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신실한 동역자
-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딤후 1:4)
-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거기에 목회자로 남겨둠
- 디도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 디도야, 그레데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라.
-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딤후 2:1)

7-3.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편지
- 디모데야,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단다.
-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 나는 곧 죽을 것이지만 하늘 상급을 기다린다.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 디모데야, 죽기 전에 한 번 보고싶구나.
-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딤후 4:9)

8. 공동서신

- 바울 서신, 계시록 외에 교회들이 돌려보게 할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
-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